

나미비아

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2. 4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8
V. 종합의견	10

I. 일반개황

면적	824.3천 km ²	G D P	132억 달러(2011년)
인구	221만 명(2010년)	1인당 GDP	5,972 달러(2011년)
정치체제	공화제(대통령중심제)	통화단위	Namibia Dollar (N\$)
대외정책	비동맹중립	환율(달러당)	7.32

- 아프리카 남서부 연안에 위치한 나미비아는 한반도의 3.7배에 달하는 국토와 221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지리적으로는 앙골라, 보츠와나, 잠비아,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접경하고 있음.
- 1인당 GDP 5,972달러로 세계은행 평가기준상 중상위소득국으로 분류되며, 우라늄, 다이아몬드, 구리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.
- 현 집권당인 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(SWAPO)는 1990년 독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, 비동맹중립을 외교원칙으로 하여 주변국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07	2008	2009	2010	2011 ^e
경제성장률	5.5	3.4	-0.4	6.6	3.8
재정수지 / GDP	5.1	2.1	-1.1	-6.3	-9.1
소비자물가상승률	6.7	10.4	8.8	4.5	5.1

자료: IMF, EIU

□ 견실한 경제성장세 지속

- 2000년대 이후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이 상승하자 다이아몬드, 우라늄 등 나미비아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겨냥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하였고 수출도 호조를 보여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.

- GDP(백만 달러): 8,833('08) → 8,984('09) → 11,142('10) → 13,168('11)

- 2009년에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다이아몬드 수요 감소, 폭우로 인한 농작물 작황 악화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(-0.4%)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, 2010년에는 신규 우라늄 광산 개발과 정부의 인프라 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6.6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- 2011년에는 민간부문의 성장과 내수 확대에도 불구하고, 다이아몬드, 우라늄, 금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3.8%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.
- 2008년에 10%를 상회하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빠르게 안정되어 2011년에는 5.1%를 기록하였음.

□ 최근 재정수지의 적자 폭 확대

- 재정수지는 1990년 독립한 이후에 2007, 0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음.
- 주요 원인은 GDP에서 공공부분의 비중이 매우 높아 정부, 공공기관 근무자의 급여 등 경상지출의 규모가 크기 때문임.
- 2007, 08년 재정수지 흑자는 나미비아가 가입한 남아프리카관세동맹(South African Customs Union: SACU)*으로부터 배당된 관세수입이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 대폭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함.
- * SACU는 5개국(남아공, 보츠와나, 레소토, 스와질랜드, 나미비아)이 공동으로 관세수입을 관리, 배분하고 있음.
- 이후 정부의 중기재정지출계획(Medium-Term Expenditure Framework: MTEF, 2008~10년)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고 적자 폭도 확대되고 있음.

2. 경제 구조 ·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외부 경기 변동의 영향이 큼

- 광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GDP의 약 45%를 차지하며, 특히 주요 수출품인 보석용 다이아몬드는 세계 경기변화에 따라 수요 변동 폭이 큼.

□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

- 75년간(1915~90년)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배를 받았으며, 독립 후에도 남아공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음.
- 남아공으로부터의 수입은 나미비아 총 수입의 80% 이상을 차지하며, 특히 식품 수입의 대부분과 전력소비량의 50%를 남아공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.

- 나미비아 달러화는 남아공 란드(rand)화와 등가교환되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고, 나미비아 중앙은행이 남아공의 South African Reserve Bank(남아공 중앙은행)의 이자율을 따르고 있으며 남아공의 금융기관들이 나미비아의 금융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

- 나미비아는 다이아몬드(매장량 세계 7위), 우라늄(세계 4위)을 비롯하여 구리, 아연, 금, 니켈, 티타늄, 보크사이트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.
- 광물자원 수출규모는 GDP의 13% 수준이나, 연관 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이 60%대로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.
- 우라늄은 Rossing과 Langer Heinrich 광산을 중심으로 최근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으며, 신규 광산이 개발되어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중국의 광동원자력회사(CGNPC)와의 Husab 우라늄 프로젝트, 세계적인 원전회사인 프랑스의 아레바(Areva)와 합작인 Trekkopje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해 FDI 순유입액*이 증가하고 있음.

* 1.7억 달러('07) → 4.1억 달러('08) → 5.0억 달러('09) → 8.6억 달러('10)

다. 정책성과

□ 5년 단위의 경제개발계획 시행

- 정부는 2007~11년에 제3차 5개년개발계획(National Development Plan: NDP 3)을 시행하였음.
- 동 계획은 빈곤 및 소득격차의 감소, 일자리 창출과 토지 재분배 등을 골자로 하여 연평균 5%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였으나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

어려움을 겪었음. 그러나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인센티브가 개선되었으며 각종 규제들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.

- 2012년에 시작되는 NDP 4에서는 고용 창출과 빈부격차 완화와 더불어, 교육·보건 인프라 확충, 에너지·운송 부문 개편을 통해 민간부문의 성장을 유도하는 구조적 개혁을 시행할 예정임.

□ 대규모 고용창출계획 추진

- 2011년 10월 정부는 향후 3년간 약 20억 달러를 투입하여 1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고용창출계획(Targeted Intervention Programme for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: TIPEEG)을 발표하였음.
- 2012년 3월까지 총 예산의 28%가 투입되었으나 실제 창출된 일자리는 7,000여 개에 그치자,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한 단기적인 고용창출에서 민간부문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으로 목표를 수정하였음.

- 또한 재정 악화를 우려, 2012년 TIPEEG 예산을 당초보다 17% 삭감하였음.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7	2008	2009	2010	2011 ^e
경 상 수 지	693	45	-161	1,239	-108
경 상 수 지 / G D P	7.8	0.5	-1.7	11.1	-0.8
상 품 수 지	-180	-717	-984	-786	-952
수 출	2,922	3,116	3,535	4,129	4,393
수 입	3,102	3,833	4,519	4,914	5,345
외 환 보 유 액	896	1,293	1,846	1,494	1,758
총 외 채 잔 액	1,798	1,761	2,038	3,101	4,537
총 외 채 잔 액 / G D P	11.3	19.9	22.7	27.8	34.5
D S R	8.9	8.1	8.0	7.7	7.8

자료: IMF, EIU

□ 경상수지는 2011년에 소폭의 적자 기록

- 2009년에는 세계 경제위기로 다이아몬드 등 광물자원의 수출이 감소하고,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입 부담이 늘어나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음.
- 2010년에는 상품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중심의 서비스수입 증가와 소득수지의 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.
- 2011년에는 경상이전수지가 SACU로부터의 관세수입 감소(비율배분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를 2012년에 수령할 예정)로 인해 흑자 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축소됨에 따라 경상수지도 소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 - 상품수지: -9.8억 달러('09) → -7.9억 달러('10) → -9.5억 달러('11)
 - 서비스수지: -0.9억 달러('09) → 1.5억 달러('10) → 1.9억 달러('11)
 - 경상이전수지: 9.8억 달러('09) → 24.4억 달러('10) → 11.4억 달러('11)
 - 소득수지: -0.7억 달러('09) → -5.6억 달러('10) → -4.8억 달러('11)

□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증가세

- 광업 부문에 대한 신규 외국인투자의 증대와 관광산업의 호조로 외환보유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
 - 2005년에 3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2011년에 약 18억 달러로 급증함.

□ 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

- 지난 3년간 실업문제(공식실업률 51%) 해결과 사회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외채규모도 빠르게 증가하였음
 - 외채잔액은 2009년 말 20억 달러(GDP 대비 22.7%)에서 2011년 말에는 45억 달러(34.5%)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.

- 그러나 나미비아는 순채권국으로서 D.S.R이 최근 약 8%를 유지하고 있고 2011년 10월에 5억 달러(만기 10년)의 유로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외채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.

* 동 채권은 나미비아의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아프리카에서 최근 발행된 유로본드 중 가장 낮은 이율(연 5.5%)에도 발행규모의 5배가 넘는 청약실적을 보였음. 채권매수자의 75%는 미국·영국의 기관투자자임.

Ⅲ. 정치 · 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2014년 대선까지 SWAPO의 안정적 집권 예상

- 현 집권당인 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(The South West Africa People's Organization: SWAPO)는 독립 후에 꾸준히 집권하고 있음.
 - 나미비아에는 총 인구의 50%를 차지하는 Ovambo족을 비롯하여, Kavango족(9%), Herero족(7%), Damara족(7%), Nama족(5%) 등 다양한 종족이 있는데, SWAPO는 1960년대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단체로 출범하여 국민적 단합의 구심점이 되었음.
- 초기 SWAPO 의장을 역임한 샘 누조마(Sam Nujoma)가 독립 후에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, 3선 후인 2004년에 포함바(Hifikepunye Pohamba) 현 대통령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였음. 포함바 대통령은 2009년 재선에 성공하였음.
- 차기 대선은 2014년에 실시될 예정인데 야당 세력이 매우 취약하여 SWAPO 지도부가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□ 노동력 부족

- 넓은 국토(82만 km², 한반도의 3.7배)에 비해 적은 인구(221만 명)로 인해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나라임.
- 과거에 에이즈(HIV/AIDS) 감염률이 높아 노동가능한 청년 인구가 부족하였음. 정부의 보건 인프라 확충 및 예방교육 노력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고 에이즈 감염률이 감소하고 있음.
- '02~'11년 중에 평균수명은 47세에서 62세로 늘어나고 에이즈 감염률은 20%에서 13%로 낮아짐.

□ 극심한 빈부 격차

- 경제의 주축인 자본집약적 광업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총 인구 중 약 3%에 불과하나, 생산성이 극히 낮은 농업 부문 인구는 약 70%로서 빈부격차가 매우 큼.

3. 국제 관계

□ 남아프리카관세동맹(SACU)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제

- 나미비아는 비동맹주의에 입각한 중립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고, 주변국과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.
- 식민종주국이었던 남아공과의 관계도 1994년 남아공이 왈비스만(Walvis Bay)과 주변 영토를 나미비아에 양보하고, 1997년에 나미비아의 채무를 탕감해주면서 우호적으로 발전해 왔음.
- 집권당인 SWAPO는 인접국인 앙골라, 짐바브웨와 예전 독립운동 당시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보츠와나와도 1998년 칼라하리(Kalahari)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1999년 영토분쟁을 해결한 이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.

□ 주요 ECA의 지원태도

- 미국 EXIM : 전액 인수 가능
- 영국 ECGD : 전액 인수 가능
- 독일 Hermes : 단기 전액인수 가능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 수립 : 1990년 3월 21일 (북한과는 1990. 3. 21)

□ 주요 협정 : 경제·과학·기술협력협정('95)

□ 우리나라와의 2011년 교역규모는 약 4,100만 달러

- 수출은 선박·해양구조물 및 부품을 중심으로 약 450만 달러, 수입은 아연, 동제품 및 어류를 중심으로 약 3,63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.

<표 4> 한 · 나미비아 교역규모

단위: 천 달러

구 분	2009	2010	2011	주요 품목
수 출	3,755	2,653	4,542	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
수 입	7,004	7,798	36,307	아연제품, 동제품, 어류
합 계	10,759	10,451	40,849	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V. 종합의견

- 아프리카 남서부 연안에 위치한 나미비아는 다이아몬드, 우라늄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식민지 당시에 건설된 도로, 철도, 항만 등 수송 인프라가 주변국에 비해 발달되어 있어 최근 자원확보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 속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해 왔음.
-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랜 식민지 하에서 독립운동단체인 SWAPO(현 집권당)를 중심으로 화합하여, 종족 간 갈등 없이 안정적인 정치·사회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.
- 최근 수년간 고용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 외채잔액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, D.S.R이 약 8%대를 유지하며 순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5억 달러의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미루어 단기 외채상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.

조사역 유나영(☎02-3779-5724)
E-mail: smilenayoung@koreaexim.go.kr